

###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이젠 나눔이다’  
나누면 나눔수록 기쁨이 커지는 나눔운동이 교계와 일반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본지가 창간 10돌을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이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태고종이 1사찰 1선행하기운동, 천태종이 ‘나눔며 하나되기운동’, 진각종이 ‘행복 릴레이 만월회’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올해부터 불교계에 불어닥친 ‘나눔’의 아젠다는 각 종단과

### 나누면 모두 행복해집니다

각 종단·단체 나눔운동 전개 ‘주목’  
기부문화 정착... 동참열기 고조

단체들이 공동의 ‘화두’로 삼고 총출동하는 상황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1% 나눔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부문화가 서서히 꽃을 피우고 있다.  
불기 2548년 5월, 부처님 오신달을 맞아 나눔의 아젠다가 확산되는 흐름속에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동포돕기, 본지 나눔의 손잡기 열기 현장, 나눔 방법과 혜택,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사찰 및 단체,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원봉사처 등을 소개한다.

### 특별기고

### 나눔의 불교적 의미

### 나와 이웃의 佛性 지키는 일

요즈음은 어디서나 ‘나눔’이라는 말이 흔히 쓰인다. 나눔이 그저 유행어인가. 왜 나눔인가?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마침 지난 일년 남짓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실무를 보는 동안에 나는 그곳을 통해서 한 편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 단체에서는 장이나 헌혈 등과 같이 몸의 일부를 나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는 것과 아울러, 재정적으로 어려운 난치병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홍보·모연을 해오고 있다. 수백 장의 헌혈증도 모아서 한

미리 덮고 아껴 쓰는 방식이 될 것이다. 돈과 물질의 소비가 미덕으로 권장되고 그래서 무지막지 살림의 쓰레기가 넘쳐나는 세상이라도 불자들만은 알뜰살뜰 아껴 쓰고 모아서 이웃과 나누는, 그래서 진정으로 넉넉한 살림을 살아야 한다. 셋째로, 불자라면 잘 아시다시피, 재시(財施)·법시(法施)·무의시(無畏施)의 교의를 깊이 새겨서 나눔의 양과 질을 동시에 구족하는 방식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돈이나 건강을 잃으면 물론 불행한 일이다. 거기가 올바른 신념이나 희망조차 잃게 되면 그 불행은 한층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 부자의 나눔은 공생 위한 약속

### 미리 덮고 아껴쓰는 마음 중요

### 봉축기간에 실천력 증진돼야

우리 회원들을 생각하면,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서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진정한 불자로서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살림을 살 수 있는 것도 두루두루 함께 노력한 결과(因緣所生)이기 때문이며, 그 몫의 일부라도 털어서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나 털어야 하는지 정확한 계산을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교계 실행단체인 <우리는 선우>에서 일찍이 ‘1% 나누기’ 운동을 주창하였듯이, 나름대로 책정한 것을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눔을 얻어볼 수도 있다. 나눔은 연중무휴이지만 특히 봉축기간 동안 우리의 결집력을 온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면 좋겠다. 연말 무렵 기록적인 기온저는 기독교인들이 좀더 많은 나눔을 이행하고, 우리 불자들로서는 연중 상반기 즉 지금과 같은 봉축기간에 나눔을 전적으로 책임지려는 의식과 실천이 좀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이혜숙 교수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 “北 용천에 ‘자비’ 보내자” 동포애 활짝



북한 용천역 참사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동참자들도 속속 늘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종단과 단체들, 그리고 사찰들은 예상보다 피해가 큰 만큼 불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지구촌 공생회는 4월 28일 북한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재를 봉행한 뒤 피해동포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 종단마다 호소문 발표·접수창구 개설 등 분주 등달기 등 성금모금 위한 각종 행사도 벌여져

■ 조계종(총무원장 법정)은 4월 2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호소문에서 ‘북한 동포들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피해복구에 함께 나서자’고 밝혔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23501-04-003199(예금주 조계종 유지재단) △문의 (02)2011-1820(총무원 사회부)  
■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4월 27일 긴급 총무원회를 열고 ‘용천역 참사 현장에 구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2천여 사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달렸다. △문의 (02)382-7361  
■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전국 각 말사에 자비의 연등 모금함을 용

전참사 지원·성금함으로 전환하고 5월 26일까지 성금을 모금한다.  
△모금계좌-우리은행 843-060670-13-025(예금주 북대한 불교 천태종 복지재단) △문의 (02)573-7645  
■ 진각종(총무원장 효암)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1인 1등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각 심인당별로 5월말까지 전개한다.  
△모금계좌-농협 024-01-040135(예금주 대한불교진각종) △문의 (02)913-0751-4

■ 총지종(총무원장 우승)은 4월 29일 대한적십자사에 이월 100채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5월 26일까지 전국 사원에서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문의 (02)552-1080  
■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이하 실천승가회는 4월 27일 이번 참사에 슬픔의 뜻을 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성금 모금 운동에 들어갔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23-01-0561-467(예금주 실천승가회) △문의 (02)725-4277

■ 한국JTS(이사장 범륜)는 긴급 지원을 위해 박지나 해외사업부장과 이지현 사무국장을 4월 25일 중국에 급파하는 한편, 평안섬유에서 지원받은 의류 1만1천벌과 양초 4천여 개를 용천에 지원했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86-01-0339-254(예금주 사)한국제이티에스 △문의 (02)587-8756  
■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욱)는 모금 계좌를 개설하고 회원과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모금계좌-국민은행 023-01-0542-

448(예금주 대한불교청년회) △문의 (02)738-1920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강지혜)는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의약품보내기 운동은 온라인모금과 거리모금, 발회모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모금계좌-국민은행 930001-01-097039(예금주 강지혜) △문의 (02)732-0239  
■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는 4월 28일 서울 영화사에서 ‘북한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제 및 부상자 회복 지원’을 봉행하고, 2천만 원을 피해 동포 돕기 성금으로 전달했다. 지구촌공생회는 위령제를 회향하는 6월 9일까지 성금을 모금한다. △문의 (02)3432-6770  
■ 평화실천광주전남 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는 용천역 폭발피해 동포 돕기 위원회(위원장, 김희석 불교연대 생명인권위원장을 설치했다.  
또한 불교연대는 그동안 모금한 북한 어린이들이 성금 가운데 500만원을 피해자 치료비로 긴급 지원했다.  
△모금계좌-광주은행 006-122-316163(예금주 양옥자) △문의 (06)2263-4742  
■ 대구 영남불교대학·관음사(회주 우하)는 28일 4층 대법당에서 북한 용천 참사 주민을 위한 기도 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생필품 접수대를 설치하고 5월 7일까지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문의 (053)474-8228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경북대본부(공동대표 장적, 안종학)도 의류(속옷, 겹옷, 모포, 이불), 의약품, 식품, 생필품 등 기타 긴급구호물자를 모으고 있다.  
△문의 (053)254-9347  
한명우 기자 mwah@buddhapia.com

**다른 치료법과 비교 불허! 최고의 건강체를 만들어가는 지법의 척추 자기요법!!**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위한 치료법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석치료의 진수**  
척추자기요법을 발명한 지법스님은 1976년에 법주사에 출가한 사문으로써 송광사, 통도사, 법어사등의 사찰에서 수행하였으며 20여년전에 중생들을 질병에서 구원해주는 약사여래기도를 하면서 영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약사여래부처님을 호신불로 모시면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갖고 체질을 비롯하여 민간요법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쉽고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기요법을 오직 치료효과에만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인체의 가장 중요한 척추를 강하게 다스리면서 오장육부의 질환과 좌골신경통, 요통, 오십견등의 질환을 다스리는데 가장 체계화된 치료법을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치료가 근골과 근육을 강하게 해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분해하여 체외로 빠르게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하고 활개하면서 활력을 원할히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면서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의술을 베풀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이번에 척추자기요법을 세상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석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석은 크거나 가우스(세기)가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 모든 자석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자석을 사용할 때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생체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자석은 반영구적으로 자력이 변하지 않는 최고의 품질인 특수한 자석만을 엄선하여 선별하였으며 한번 구입하시면 평생동안 반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효과 또한 여타의 다른 치료법과 비교를 불허하는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심계(체식, 체변, 체면)의 즐거운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 출원된 제품 한세트 가격: 150,000원**  
상담 및 구입문의: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흥현의)  
네이션의 건강과 내가족의 건강을 평생동안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지킴이!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지킴이 되었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 주소 : www.jibub.com E-Mail : jibub@jibub.com

http://kumdeung.com

**황금연등**

금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황금빛 찬란한  
황금연등으로 온 누리를 밝히소서

**KD 금등사** 대리점 모집 · 구매상담 031) 846-1950, 011-774-1452